



추석맞이 사랑의 구호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 직원들이 9일 광주 북구 매곡동 지사 창고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구호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구호품은 쌀(10kg)1포와 재래식 김 1세트, 부식 및 찹쌀 외 8종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 '백기투항'

추징금 1672억원 자진 납부
오늘 장남 재국씨 사과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씨도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하면서 16년간 끌어온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전씨의 장남 재국씨측 변호인 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장소는 미정이다.

발표는 장남인 재국씨가 맡기로 했으며, 추징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처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뒤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씨 자녀들은 지난 4일에 이어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장남 재

국씨의 거주지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각자 분담금을 어떻게 나누고, 분담금 마련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국씨가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이 압류한 각자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류된 부동산 등은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압류 재산의 추가 분담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쌀 수입 전면 개방 '뜨거운 감자' 부상

정부 긍정 검토... 내년초 방침 확정 WTO와 협의
국회입법조사처 "의무 수입량 부담, 관세화가 유리"
農道 전남 직격탄... 한·중 FTA 맞물려 농민단체 반발

정부가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관세화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 "농수산업을 민감산업으로 보호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높지만 쌀 수입이 개방되면 향후 FTA 협상에서 농수산업 보호 정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 수준인 '농도(農道) 전남'은 직격탄을 맞게 돼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을 늘리는 대신 쌀에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부는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의견과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쌀은 지난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전면 개방대상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 후 2004년 같은 내용으로 10년 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를 전제로 한 수입개방 연기는 내년이 기한이다.

정부는 국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

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쌀 수입 물량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고, 국내의 쌀 가격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쌀 전면 개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처음으로 100kg 밑으로 떨어진 뒤 2001년 90kg, 2006년 80kg, 지난해 70kg선이 각각 무너지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난다. 국내서 밖으로 소비되는 쌀의 12%에 달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자유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자유에 기간 만료(2014년)시 추가 연장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정부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내

년에 추가 연장을 할 경우, WTO 전체 157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확보해야 가능해 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도 불거진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2014년 41만t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방침을 확정해 WTO와 협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조율한 뒤 내년 9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 국제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육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압박

결원이사 선임 촉구 공문

교육부가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루고 있는 조선대 이사회에 임시이사 파견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7면>

9일 교육부와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4일 교육부가 결원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조선대 이사회에 보냈다.

교육부는 '임원 선임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사회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기 이사회까지 결원이사 1명을 보충해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결원이사를 뽑지 못하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

하겠다"고 의결한 점을 들어, "결원이사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임시이사 선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파견은 조선대 이사회가 결원이사를 뽑지 못하면서 학내의 반발에 부딪히자 먼저 제시했으며, 교육부가 이 내용을 확인·촉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는 옛 경영진이 물러난 지난 1987년 이후 22년간의 임시이사 체제 끝에, 2009년 12월31일 정상화 승인을 거쳐 정이사가 선임됐다. 하지만 정원 9명 중 1명이 장기 결원 상태에서, 나머지 8명 이사 전원의 임기도 만료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고품질 녹차
작설차
친환경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 222-2902, 3973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NC점 062-510-7040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